

박근혜 대통령,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 참석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UAE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모하메드 왕세제의 친동생)과 함께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 원전건설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 및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원자로 벽면에 “바라카에서 시작된 협력의 불꽃이 양국의 미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친필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대한 우리 측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UAE 영빈관인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모하메드(H. H.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 및 업무오찬을 갖고 이번 원자로 설치를 계기로 한-UAE 간 원전협력은 물론 에너지, 국방, 보건의료, 경제혁신 및 창조경제 등 제반 분야로까지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한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 제로화 위해  
간담회 개최

한전(사장 조환익)은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전력기자재의 성능 확인과 직결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ZERO화를 위해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국내 주요 공인시험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시험성적서 상시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한전과 시험기관간 DB연계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공동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비용 감면과 전력기자재 품질향상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한편, 한전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업체의 자격기준을 등록정지 1년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그동안 업체가 한전으로 제출하던 공인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이 직접 한전으로 제출하도록 시험성적서 제출방법을 개선한 바 있다.

한전은 앞으로 시험기관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단 한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컨설팅 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및 동방전기공업(주) 등 12개 협력사 대표이사 등과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혁신운동 3.0'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운동으로, 협력사가 대기업의 지원 아래 기술혁신, 작업환경·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범경제계 차원의 운동이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범하여 정부(산업통상



한전, 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위한 '산업혁신운동

3.0' 업무 협약식 개최

한전, SG 인프라  
전국 단위 구축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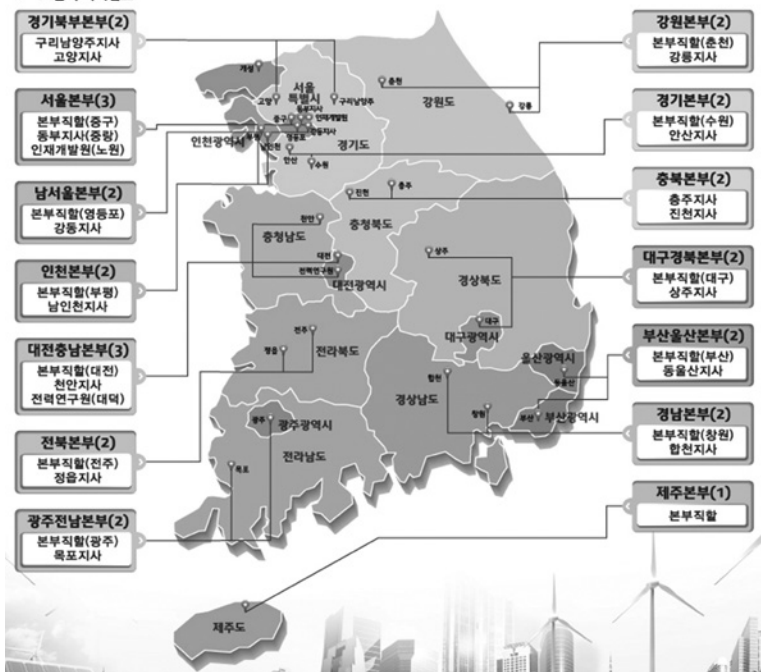
자원부)에서도 동반성장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제품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코자 지난 4월 16일 전문 컨설턴트 Pool을 구축했고, 이번 '산업혁신운동 3.0'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20개 기업에 대해 5월부터 혁신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한전은 향후 2017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업체를 1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월 5일 준공한 한전 구리남양주시사의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이하 'SG스테이션') 모델을 전국 사옥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SG스테이션 구축 확대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한전의 전국 14개 본부 220개 사옥 중 계약전력 300kW이상인 119개(2014년 29개, 2015년 90개) 사옥에 대해 총 사업비 262억 원을 투자해 SG스테이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국 단위로 구축하게 될 SG스테이션은 체험교육형, 연구개발형, 수요관리형 등 3가지 세부모델로 분류해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응용기술 개발, 피크감축과 수요조절이 가능한 SG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14년 구축사업소



앞으로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전체 피크전력의 5%(4MW)와 전력사용량 10%(10GWh)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4,700t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분산돼 설치될 SG스테이션의 전력수급을 일괄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 전력수급상황에 맞춰 중앙에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수출전시회와 촉진회에 참가, 1,177만 불의 수출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전은 남아공에서 지난달 13~14일 열린 'African Utility Week 2014'에 참가, 삼화콘텐서 등 국내 10개 송배전 분야 중소기업과 'KEPCO 공동관'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력기자재를 전시·홍보했다. 이날 전시회에 참가한 한전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은 남아공 국영 전력회사인 ESKOM 경영진들과 아프리카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한전과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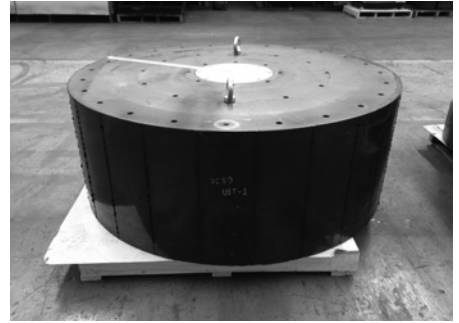
한편 한전은 아프리카 최대의 잠재적 전력기기 수요처인 나이지리아에서도 16~17일 수출촉진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1:1 수출상담 기회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나이지리아 IKEJA社 등 현지 전력 회사를 직접 방문해 전력분야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 한전,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아프리카 시장개척 나서다

강진(强震) 지역 원전  
수출도 '이상無'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 석)이 강진에도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전용 면진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면진장치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해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로 구조물 자체가 지진을 견디는 내진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수원은 프랑스와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상업원전용 면진장치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둬으로써 터키 등의 강진(强震) 지역 원전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면진장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예상지진보다 에너지가 20배나 큰 리히터규모 7.3 정도(최대지반가속도 0.5g)의 지진이 발생 하더라도 지진 에너지를 흡수해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원전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국책과제인 '수출형 원전 대비 면진장치 국산화 개발'을 통해 면진장치를 개발한 뒤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증실험을 지난달 초 성공적으로 마쳤다. 총 40여종의 까다로운 성능검증을 수행해 원전 적합성을 입증했고, 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발전회사 간 협업으로  
하계 전력수급 비상  
제로화 추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설비 기술점검을 3개 발전회사가 합동으로 교차 시행함으로써 전력



수급 비상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를 시작으로 30일 서부발전 서인천발전 본부까지 2주간 각 발전회사 기술전문원으로 그룹을 구성해 발전설비 기술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은 발전소 고장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하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을 강화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개 발전회사는 터빈, 보일러, 전기, 제어 등 분야별 전문가인 기술전문원을 육성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한 실적은 있으나 설비를 합동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상호)이 버려지던 폐자원의 에너지원 활용을 위해 고품연료 연소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 힘을 모은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1일 본사 비전룸에서 에너지원(주)과 ‘고형연료 신재생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사업장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고품화 처리하여 생산한 재생에너지원이다. 남부발전은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처리비용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이행을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남부발전 이상호 사장은 “고형연료 활용은 매립, 소각 등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서울도시가스 등은 지난 달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노을 연료전지사업(정식 명칭 ‘노을 그린에너지 사업’)의 주주 간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을 연료전지사업의 주주사인 지역난방공사 이홍열 사업본

폐자원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

한수원-한남-포스코에너지 등

노을 연료전지 사업 주주협약

부장, 한수원의 김용집 수력양수본부장, 서울도시가스의 유승배 대표이사, 포스코 에너지의 이경훈 부사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을 연료전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주사의 역할·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한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총 1,07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15년 6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유희부지에 2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1억5,760만kWh의 전기와 약 650억kcal의 열을 생산·공급하게 되며, 이는 서울시 약 5만여 가구에 전력공급과 6,500여 가구에 난방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남동발전, 코리아빅데이터  
어워드 대상

한국남동발전(주)(사장 허엽)은 지난달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매일경제신문사, MBN이 주최한 '제1회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에서 연료자원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로로 제조분야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았다.

코리아빅데이터어워드 대상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내 모든 기업 가운데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공로가 많은 기업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산업적 가치로 활용해 데이터의 산업경영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경영자(CEO) 등 5개 분야에서 평가와 시상이 이뤄진다.

회사를 대표해 수상자로 나선 남동발전 홍성의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은 "이번 1회 대상 수상이 창조경제 시대에 디지털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빅데이터 활용

분야 연구의 권위를 높이고, 후발 기업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기업 운영의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국전력기술(주) 박구원 사장과 코트디부아르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씨프렐(Ciprel)社 응귀산(N'Guessan) 사장이 지난달 22일 한전기술 본사에서 만나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씨프렐사는 프랑스 부이그(Bouygues) 그룹의 투자회사인 피나제스천(Finagestion)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코트디부아르에서 발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기술의 최초 해외 EPC 사업인 'Ciprel IV Volet B EPC사업'의 사업주로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양 회사의 사장은 Ciprel IV Volet B EPC사업의 차질없는 준공과, 후속 해외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한전기술-씨프렐(Ciprel)社  
해외 발전시장 협력 논의



한전KPS,  
UAE지사 개소

한전KPS(주)(사장 최외근)는 지난달 20일 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아랍에미리트지사’를 설립하고 최외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해외 5번째 지사를 갖추게 됐다.

지난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UAE로부터 한국형원전(APR1400) 4개 호기를 수주한 이후 현재 UAE원전의 건설공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KPS는 지난 2013년 8월 시운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초 UAE원전 시운전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재 기술인력 양성 및 절차서를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설립된 한전KPS UAE지사는 현지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파견직원의 비자발급과 현지 정비환경 구축 등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출발점임과 동시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플랜트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두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